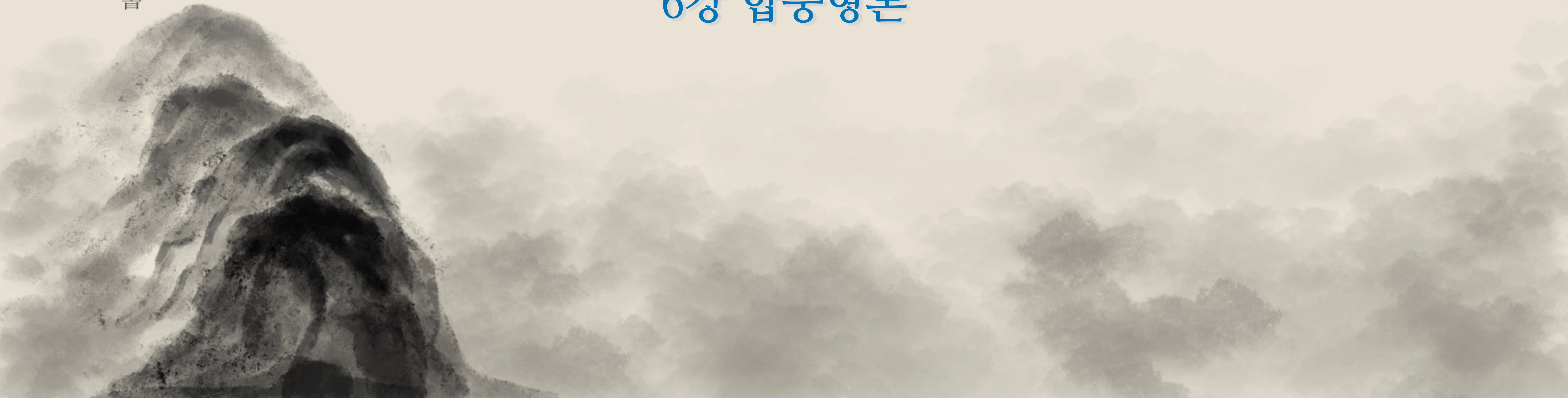


명리 고전 하이라이트 강독 I

6강 합충형론

李虛中命書
子平粹言



〈子平眞詮〉 論十干配合性情

合化之義, 以十干陰陽相配而成. 河圖之數, 以一二三四五配六七八九十, 先天之道也. 故始於太陰之水, 而終於沖氣之土. 以氣而語其生之序也.

蓋未有五行之先, 必先有陰陽老少, 而後沖氣, 故生以土, 終之既有五行.

卽萬物又生於土, 而水火木金, 亦寄質焉, 故以土先之. 是以甲己相合之始, 則化爲土.

土則生金, 故乙庚化金次之. 金生水, 故丙辛化水又次之. 水生木, 故丁壬化木又次之. 木生火, 故戊癸化火又次之.

而五行焉, 先之以土, 相生之序, 自然如此. 此十干合化之義也.

합화의 의(義)는 십간의 음양이 서로 짝을 이루므로써 이루어진다. 하도의 수는 일, 이, 삼, 사, 오를 육, 칠, 팔, 구, 십에 짝을 지우니 선천의 도이다. 그러므로 태음의 수에서 시작하여 충기의 토에서 끝난다. (이것은) 기로써 그 생의 순서를 말한 것이다.

무릇 오행이 있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음양 노소가 있고 그 후에 기를 화하니 그리하여 토로써 생겨나고 그것을 마치고서야 오행이 있게 되는 것이다. 즉 만물은 또 토에서 생겨나고 수화목금은 또한 토에서 그 질을 기탁(寄託)하니 이런 까닭으로 토가 앞서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갑과 기가 상합의 시작이 되어 곧 화하여 토가 된다. 토는 곧 금을 생하니 그러므로 乙과 庚이 금으로 화하여 그 다음이 된다. 금은 수를 생하니 고로 丙과 辛이 수로 화하여 또 그 다음이 된다. 수는 목을 생하니 고로 丁과 壬이 목으로 화하여 또 그 다음이 된다. 목은 화를 생하니 고로 戊癸가 화로 화하여 또 그 다음이 된다. 오행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토로써 시작하여 상생의 순서를 따르니 자연도 이와 같다. 이것이 십간이 합하여 화하는 의이다.

〈李虛中命書〉

同形則貴在巖廊 六合或清居邦教

간지가 같은 형태로 합하는 경우엔 귀한 몸이 조정에 있게 되고
육합이 혹 청결하게 합하는 경우에는 나라의 교육기관에 있게 된다.

六合專位貴清選

육합이 전담하는 자리가 귀하면 청고하고 뛰어난 인재가 된다.

連屬不言孤寡清絶 可勝乖違

간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면 고아와 과부, 서늘함과 처량함을
논하지 않으며 어그러지고 위반함을 이겨낼 수 있다.

〈三命通會〉論十干合

甲與己何名爲中正之合 甲陽木也其性仁 位處十干之首 己陰土也 鎮靜淳篤 有生物之德 故甲己爲中正之合帶此合主人尊崇重大 寬厚平直 如帶煞而五行無氣則多嗔好怒性 梗不可屈

갑과 기의 합은 어찌하여 중정지합(中正之合)이라 하는가?

갑은 양목이고 그 성질은 인자하여 십간의 우두머리에 위치하고, 기는 음토이고, 침착하고 성실하여 만물을 생하는 덕이 있으므로 갑기합은 중정지합이 된다.

이 합은 사람이 중대함을 우러러 존경하며, 관대하고 돈후하며 꾸밈없이 바르다.

가령 살(煞)을 차고 오행이 무기(無氣)하면 진노하기를 좋아하고 성질이 강경하여 굽히지 않는다.

6강 합충형론

乙與庚何名爲仁義之合 乙,

陰木也, 其性仁而太柔, 庚, 陽金也, 堅強不屈則剛柔相濟, 仁義兼資.
故主人果敢有守, 不惑柔佞, 周旋唯仁, 進退唯義. 五行生旺則骨秀形清,
若死絕帶煞則使氣好勇, 體貌不揚, 自是非人. 甲己, 乙庚之合, 婦人不忌.

을과 경의 합은 어찌하여 인의지합(仁義之合)이라 하는가?

을은 음목이고 그 성질은 인자하지만 크게 유약하다. 경은 양금이고 완강하여 굽히지 않는다.

강하고 부드러운 두가지 수단을 서로 보충하여 사용하니 인의를 겸하여 갖추게 된다. 고로 사람이 과감하고 절개가 있어 부드러운 아침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인(仁)으로만 교제하고 나아가고 물러남을 오직 의롭게 한다. 오행이 생왕하면 골격과 용모가 청수(淸秀)하고 만약 사절(死絶)이고 살기(煞氣)를 차고 있으면 기세를 부리고 만용을 좋아하며 용모가 보잘것 없는데, 자기가 옳다고 여기면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

갑기, 을경의 합은 부인에게는 꺼리지 않는다.

6강 합충형론

丙與辛何名爲威制之合 丙, 陽火也, 輝赫自盛, 辛, 陰金也, 克刃喜煞.
故丙辛爲威制之合.

主人儀表威肅, 人多畏懼, 酷毒, 好賄喜淫, 若帶煞或五行死絕則寡恩少義, 無情之人.
婦人得之, 與天中, 大耗, 咸池相併者, 貌美聲卑, 三合也, 天治而淫.

병과 신의 합은 어찌하여 위제지합(威制之合)이라 하는가?

병은 양화이니 밝게 빛나서 스스로 성대한 것이고, 신은 음금인데 칼날을 이겨내고 살기(煞氣)를 좋아한다.
고로 병신의 합이 위제지합이 된다. 병신합이 되면 사람의 몸가짐이 위엄있고 엄숙하여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며, 흑독하고, 뇌물을 좋아하며 음행을 즐긴다.

만약 살기(煞氣)를 차거나 오행이 사절이면 박덕하고 의롭지 않으며 무정(無情)한 사람이다.

부인이 이를 얻고 천중과 대모, 합지가 서로 나란히 있으면 용모는 아름답지만 목소리가 비천하다.

삼합이 있으면 곱고 아름답지만 음란하다.

6강 합충형론

丁與壬何名爲淫暱之合 壬者, 純陰之水, 三光不照, 丁者, 藏陰之火, 自昧不明.

故丁壬爲淫暱之合. 主人眼明神嬌, 多情易動, 不事高潔, 習下無去, 枕歡溺色, 於我則吝, 於彼則貪, 若五行死絕或帶煞, 見咸池, 大耗, 天中自敗, 有淫污家風之醜, 親厚小人, 侮慢君子, 貪婪妄作, 必勝而後已. 婦人淫邪奸慝, 易挑易誘, 多招玷辱, 或年高而嫁少夫, 或年幼而配老夫, 或先賤而後良, 或先良而後賤.

정과 임의 합은 어찌하여 음특지합(淫暱之合)이라 하는가?

임은 순음의 수이고 삼광(三光; 해, 달, 별)이 비치지 않으며 정은 그늘을 감추는 불이므로 스스로 어둠을 밝히지 못한다. 고로 정임합은 음닐지합이 된다. 정임합이 되면 눈치는 빠르지만 마음은 교만하고 정이 많아 쉽게 감동하여 고결하지 못하며 천한 것을 익혀 버리지를 못한다. 색에 빠져 동침을 즐겨하며 내 것은 인색하고 남의 것은 탐한다. 만약 오행이 사절이거나 살기를 차고 있으면서 함지, 대모, 천중살을 보면 스스로 무너지며 음란하고 추한 가풍(家風)이 있다. 소인을 곁에 두어 친하게 지내고 군자는 업신여기며 매우 탐욕스럽고 함부로 행동하고 반드시 이긴 뒤에야 그친다. 부인은 음란하고 간특하여 쉽게 선택하고 쉽게 유혹되니 모욕당하는 것을 많이 초래한다. 혹 나이들어 젊은 남자에게 시집가거나 혹 어린 나이에 늙은 남자와 혼인한다. 혹 먼저는 비천하고 나중에 좋아지거나 혹 먼저는 좋지만 나중에 비천하게 된다.

6강 합충형론

戊與癸何名爲無情之合 戊, 陽土也, 是老醜之夫, 癸, 陰水也, 是婆娑之婦, 老陽而少陰, 雖合而無情, 主人或好或醜, 如戊得癸則嬌媚, 姿美得所, 男子娶少婦, 婦人嫁美夫; 若癸得戊則形容古樸, 老相俗塵, 男子娶老妻, 婦人嫁老夫. 經曰, 戊癸合則少長無情.

무와 계의 합은 어찌하여 무정지합(無情之合)이라 하는가?

무는 양토이고 늙고 추한 남자이다. 계는 음수이고 가녀린 젊은 여자이다.

노양과 소음이니 비록 합하여도 무정하다. 무계합이 되면 혹은 아름답고 혹은 추하다.

가령 무토가 계수를 얻으면 요염하고 교태가 있으며

아름다운 미모에 걸맞게 남자는 젊고 어린 부인과 결혼하고 여자는 잘생긴 남자한테 시집간다.

만약 계수가 무토를 얻으면 용모가 예스럽고 소박한 편인데 걸쭉해보이고 세상의 번잡함에 시달린 사람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늙은 여자한테 장가가고 여자는 늙은 남자한테 시집간다.

경에 이르기를 "무토가 계수와 합하면 어리든 나이가 있든 무정하다." 라고 하였다.

〈子平眞詮〉 論十干配合性情 論十干合而不合

其性情何也. 蓋既有配合, 必有向背. 如甲用辛官, 透丙作合, 而官非其官. 甲用癸印, 透戊作合, 而印非其印.

甲用己財, 己與別位之甲作合, 而財非其財.

如年己月甲, 年上之財, 被月合去, 而日主之甲乙無分. 年甲月己, 月上之財, 被年合去, 而日主之甲乙不與是也.

甲用丙食, 與辛作合, 而非其食. 此四喜神因合而無用者也.

그 성정은 어떠한가. 대개 이미 짝을 지어 합함이 있으면 반드시 향배가 있다.

만약 甲이 辛을 관으로 쓰는데 丙이 투출하여 합을 이룬다면 관은 그 관 노릇을 하지 못한다.

甲이 癸를 인성으로 쓰는데 戊가 투출되어 합을 이룬다면 인성은 그 인성 노릇을 못하게 된다.

甲이 己를 재로 쓰는데 기와 또 다른 자리의 갑이 합을 이룬다면 재는 그 재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된다.

만약 년에 己가 있고 월에 甲이 있는데 년상의 재가 월에 의하여 합거가 된다면 일주의 甲乙은 나누어지지 않는다.

년에 甲이 있고 월에 己가 있을 경우 월상의 재가 년에 의하여 합거가 되면 일주의 甲乙은 이와 더불지 않는다.

甲이 丙을 식신으로 쓸 때 辛과 더불어 합을 한다면 식신의 노릇을 못한다.

이것이 四 희신이 합으로 인하여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다.

6강 합충형론

又如甲逢庚爲煞，與乙作合，而煞不功身。

甲逢乙爲劫，與庚作合，而乙不劫財。甲逢丁爲傷，與壬作合，而丁不爲傷官。

甲逢壬爲梟，與丁作合，而壬不奪食。此四忌神因合化吉者也。

또 만약 甲이 庚을 만나면 살이 되는데 乙과 더불어 합을 이루면 살은 일주를 공격하지 않는다.

甲이 乙을 만나면 겁재가 되는데 庚과 더불어 합을 이루면 乙은 겁재 노릇을 하지 않는다.

甲이 丁을 만난다면 상관이 되는데 壬과 더불어 합을 이루면 丁은 상관 노릇을 하지 않는다.

甲이 壬을 만나면 효신이 되는데 丁과 더불어 합을 이루면 壬은 식상을 극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기신(四忌神)합으로 인하여 길하게 화(化)한 것이다.

6강 합충형론

蓋有所合則有所忌, 逢吉不爲吉, 逢凶不爲凶.

則以六親言之, 如男以財爲妻, 而被別干合去, 財妻豈能親其夫乎.

女以官爲夫, 而被他干合去, 官夫豈能愛其妻乎. 此謂配合之性情, 因向背而殊也.

무릇 합한 바가 있으면 곧 꺼리는 것이 있으니 길한 것을 만나서 길하지 않게 되기도 하고
흉한 것을 만나서 흉하게 되지 않기도 한다.

즉 육친을 가지고 말해보면 만약 남자면 재로써 처를 삼는데

다른 천간에 의하여 합거가 되면 재인 처가 어찌 능히 그 남편과 친할 수가 있겠는가.

여자는 관을 남편으로 삼는데 다른 천간에 의하여 합거가 된다면 관인 남편이 어찌 능히 그 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배합의 성정을 말한 것이니 향배로 인하여 달라지는 것이다.

6강 합충형론

然而亦有合而不合者, 何也 蓋隔於有所間也,
譬如人彼此相好, 而有人從中間之, 則交必不能成.

譬如甲與己合, 而甲己中間, 以庚間隔之,
則甲豈能越克我之庚而合己 此制於勢然也, 合而不敢合也, 有若無也.

그러나 또한 합이 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은 무엇 때문인가?

대개는 그 사이에 있는 것에 막혀 있기 때문이다.

비유컨대 사람이 서로 좋아하는 데 다른 사람이 가운데서 사이를 벌리면 곧 사귀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컨대 갑목은 기토와 합하는 데 갑목과 기토사이에 경금이 사이에서 이를 막으면

갑목이 어찌 나를 극하는 경금을 넘어 기토와 합을 할 수 있겠는가?

이는 세력에 제압된 것이고, 합하였으나 합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고, 있는 듯하나 없는 것이다.

6강 합충형론

又有隔位太遠, 如甲在年乾, 己在時上,
心雖相契, 地則相遠, 如人天南地北, 不能相合一般.
然於有所制而不敢合者, 亦稍有差,
合而不能合也, 半合也, 其為禍福得十之二三而已.

또 막힌 자리가 너무 먼 경우가 있다.

예컨대 갑목이 년간에 있고 기토가 시간에 있으면, 마음은 비록 서로 맺고자 하지만 땅이 너무 먼니
마치 사람이 남쪽하늘과 북쪽 땅에 헤어져 서로 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제압되어 감히 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또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합하여도 합할 수 없는 것과 반합은 그 길흉이 10분의 2나 3 정도일 뿐이다.

6강 합충형론

又有合而無傷於合者, 何也

如甲生寅卯, 月時兩透辛官, 以年丙合月辛, 是為合一留一, 官星反輕.

甲逢月刃, 庚辛並透, 丙與辛合, 是為合官留煞, 而煞刃依然成格, 皆無傷於合也.

또 합하였으나 합에 손상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예컨대 갑목이 인목이나 묘목일에 태어나고 월과 시에서 신금 정관 두 개가 투출하여
년간 병화가 월상 신금과 합하면, 합도 하나이고 관성도 하나가 되어 관성이 오히려 가벼워진다.

갑목이 월의 양인을 만나고 경금과 신금이 나란히 투출하면서 병화와 신금이 합하면,
이는 정관을 합하고 편관을 남겼지만 편관과 양인이 여전히 격을 이루니 모두 합에서 손상이 없는 것이다.

6강 합충형론

又有合而不以合論者, 何也, 本身之合也.

蓋五陽逢財, 五陰遇官, 俱是作合, 惟是本身十干合之, 不為合去.

假如乙用庚官, 日乾之乙, 與庚作合, 是我之官, 是我合之.

何為合去, 若庚在年上, 乙在月上, 則月上之乙, 先去合庚, 而日干反不能合, 是為合去也.

又如女以官為夫, 丁日逢壬, 是我之夫, 是我合之, 正如夫妻相親, 其情愈密.

惟壬在月上, 而年丁合之, 日乾之丁, 反不能合, 是以己之夫星, 被姊妹合去, 夫星透而不透矣.

또 합하여도 합으로 논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본신의 합이다.

대개 다섯 양간은 재성을 만나고 다섯 음간은 관성을 만나면 모두 합을 하는데

오직 본신인 열 가지 천간이 이를 합하면 합거로 보지 않는다. 가령 을목은 경금을 써서 정관인데,

일간인 을목이 경금과 합하는 것은 나의 관성이고 내가 합하는 것이니 어떻게 합거를 하겠는가?

만약 경금이 년간이고 을목이 월간이면 월간인 을목이 먼저 가서 경금과 합하여 일간은 오히려 합을 할 수 없으니 이는 합거가 되는 것이다.

또 여자는 관성이 남자인데, 정화일이 임수를 만나면 나의 남편이고 내가 합한 것이어서

마치 부부가 서로 친하고 그 정이 더욱 비밀스러운 것과 같다.

오직 임수가 월상에 있고 년간 정화가 이를 합하면 일간인 정화는 오히려 합을 할 수 없으니

자기의 남편이 자매에게 합거되어 남편이 있으나 있지 않은 것이다.

6강 합충형론

然又有爭合妒合之說, 何也

如兩辛合丙, 兩丁合壬之類, 一夫不娶二妻, 一女不配二夫, 所以有爭合妒合之說.

然到底終有合意, 但情不專耳. 若以兩合一而隔位, 則全無爭妒.

如庚午, 乙酉, 甲子, 乙亥, 兩乙合庚, 甲日隔之, 此高太尉命, 仍作合煞留官, 無減福也.

그러하나 또 쟁합과 투합의 설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컨대 두 신금이 병화와 합하고 두 정화가 임수와 합하는 류이다.

한 남편은 두 아내를 취하지 않고 한 여자는 두 지아비와 짝하지 않으니 쟁합과 투합의 설이 있게 되었다.

그러나 결국에는 끝내 합하는 뜻이 있으나 다만 그 정을 오로지할 수 없을 따름이다.

만약 두 개가 하나로 합하려 하는 데 자리가 막혀 있으면 쟁합과 투합은 모두 없다.

예컨대 庚午、乙酉、甲子、乙亥 는 두 을목이 경금과 합하는데 갑목 일간이 이를 막고 있다.

이는 고태위의 명조이다. 여전히 합살류관하여 복이 줄지 않았다.

6강 합충형론

令人不知命理 動以本身之合, 妄論得失, 便有可笑者, 書云合官非爲貴取,
本是之論而或以本身之合爲合, 甚或以他支之合爲合, 如辰與酉合,
卯與戌合之類 皆作合官 一謬至此 子平之傳掃地矣.

지금 사람들은 命理를 알지 못하여 곧잘 本身의 合을 가지고 함부로 得失을 논하며
다시 더 가소로운 것이 있으니 옛 책에 正官은 合 하면 귀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본래 그것은 지당한 논리이지만 혹은 本身의 合을 合이라 여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다른 지지의 合도 合으로 여겨서 辰과 酉의 合이나 卯와 戌의 合과 같은 종류도
모두 合官으로 간주하여 마침내 오류가 이러한 지경에 이르니 子平의 전함이 사라진 것이다.

〈三命通會〉 論十干化氣

甲己化土, 非辰戌丑未月不化, 其次午月亦化, 有戊字間之則不化, 名曰妒合.

凡辰戌丑未生人, 甲己化土, 切要木爲官, 得亥卯, 亥未爲官, 戊癸氣爲福, 忌見丁壬日時.

갑기회토는 진술축미월이 아니면 화하지 않으나 그 다음 오월에는 또한 화한다.

무토의 글자가 그 사이에 있으면 화하지 않으니 이름하여 투합 즉 합을 질투한다는 것이다.

갑기화토는 목을 관으로 삼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갑을인묘를 얻으면 관이 된다.

무계의 기운은 복이 되지만 정임의 일시를 보는 것을 꺼린다.

6강 합충형론

乙庚化金, 非巳酉丑月不化, 其次七月亦化, 有甲字間之則不化, 名曰妒合.

乙庚化金, 切要火爲官, 故喜丙丁巳午甲己爲福, 忌見戊癸日時.

을경화금은 사유축월이 아니면 화하지 않으나 다음인 6월 신월은 또한 화한다.

갑의 글자가 그 사이에 있으면 불화니 이름하여 투합이다.

을경화금은 화가 관이 됨을 절실히 요한다.

고로 병정소오를 기뻐하고 갑기는 복이 되지만 무계의 일시를 보는 것은 꺼린다.

6강 합충형론

丙辛化水. 非申子辰月不化, 其次十月亦化, 柱有丁字不化, 名曰妒合.

凡申子辰生人見癸亥, 名曰受氣臨官, 亦主晚年不佳.

又曰：丙辛化水, 切要土爲官, 得辰戌丑未爲官, 乙庚爲福, 忌見甲己日時.

병신화수는 신자진월이 아니면 불화하지만 해월에는 또한 화한다.

주에 정화가 있으면 투합이다.

병신화수는 토가 관이 됨을 필요로 하니 진술축미를 얻으면 관이 되고
을경은복이 되며 일시에 갑기를 보는 것을 꺼린다.

6강 합충형론

丁壬化木, 非亥卯未月不化, 其次正月亦化, 柱有丙字不化, 名曰妒合.

亥卯未生人見甲寅, 名曰受氣臨官, 晚年不佳.

又曰: 丁壬化木, 切要庚辛申酉爲官, 丙辛爲福, 忌見乙庚日時.

상동

戊癸化火, 非丙午戌月不化, 其次四月亦化, 柱有己字不化, 名曰妒合.

凡寅午戌生人見丁巳爲受氣臨官, 晚年不佳.

又曰: 戊癸化火, 切要壬癸亥子爲官, 丁壬爲福, 忌見丙辛日時.

상동

6강 합충형론

有座下自化, 乃壬午, 丁亥, 戊子, 甲午, 辛巳, 癸巳, 丁祿在午, 壬與丁合, 壬祿在亥, 丁與壬合之例.

壬午, 丁亥爲福最深, 戊子聰明, 辛巳權謀, 甲午亦作小亨, 癸巳貴中有酒色之疾.

자좌에서 스스로 화하는 것이 있다.

임오 정해 무자 갑오 신사 계사로 정의 녹은 오에 있고

임과더불어 정이 합하며 임의 녹은 해에 있는데 정과 임이 합하는 것과 같은 예다.

정해는 복이 가장 깊으며 무자는 총명하고

신사는 권모가 있고 갑오 역시 작은 형통함을 지으며 계사는 귀한 가운데 주색의 질병이 있다.

〈三命通會〉 論支元三合

或以三合者, 如人一身之運用也. 精乃天之元, 氣乃神之本, 是以精爲氣之母, 神爲氣之子, 子母相生, 精氣神全而不散之爲合.

蓋謂支屬人元, 故以此論之. 如申子辰, 申乃子之母, 辰乃子之子, 申乃水生, 子乃水旺.

辰乃水氣, 生即產, 旺即成, 庫即收, 有生有成有收, 萬物得始得終, 乃自然之理, 故申子辰爲水局.

若三字缺一則化不成局, 不可以三合化局論. 蓋天地間道理, 兩則化, 一陰一陽之謂也, 三則化, 三生萬物之謂也.

巳酉丑, 寅午戌, 亥卯未皆然. 五行不言土者, 四行皆賴土成局, 萬物皆歸藏於土故也; 若辰戌丑未全自作土局.

혹 삼으로 합한다는 것은 곧 사람이 한몸을 운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정(精)은 곧 기(氣)의 근원(元)이요 기(氣)는 신(神)의 뿌리(本)이다. 이로써 정(精)은 기(氣)의 어머니가 되고 신(神)은 기(氣)의 자식이 되어 자모(子母)가 서로 상생(相生)하니 정기(精氣)신이 온전(全)하고 흩어지지 않아서 합(合)이 되는 것이다. 대개 지지(地支)는 인원(人元)에 속한다고 하는 고(故)로 이로써 논한다.

신자진(神子辰)의 경우, 신(神)은 곧 자(子)의 어머니요 진(辰)은 곧 자(子)의 자식(子)으로 신(神)이 수(水)를 생(生)하니 자(子)는 곧 수가 왕(旺)한 것이다.

진(辰)은 수(水)의 고(庫)라 곧 생(生)하고 키우(育)고 왕(旺)함을 이루며 고(庫)를 거둔다. 생(生)이 있고 성(成)이 있으며 수(收)이 있는 것이다.

만물(萬物)은 시작(始)이 있으면 끝(終)이 있는 것이 자연(自然)의 이치(理)라 도로 신자진(神子辰)은 수국(水局)이 된다.

만약 삼자(三字) 중에 하나라도 결(缺)한다면 화(化)하여 국(局)을 이루지 못하니 이로써 삼합화국(三合化局)을 논(論)함은 불가(不)하다.

대개 천지간(天地間)의 도리(道理)는 둘(二)인즉 화(化)하니 일음일양(一陰一陽)을 일컫는 것이요, 삼즉화(三合化)라는 것은 삼생(三生)만물(萬物)을 일컫는 것이다.

사유축(四有) 인오술(仁五術) 해묘미(海妙味)가 모두 그와 같다.

오행(五行)에서 토(土)를 말하지 않음은 사행(四行)이 모두 토(土)에 의지(依)하여 그 국(局)을 이루게 되고 만물(萬物)이 모두 토(土)로 돌아가 숨(息)기 때문이다.

만약 진술(辰術)축미(축미)를 모두 갖추었다면 이는 스스로 토국(土局)의 이론(理論)을 지은 것이다.

6강 합충형론

與建祿合者, 多橫財, 意外名望之福.

正印貴人合 得天恩貴人提攜之福 食神合衣祿豐餘, 飲食厚給.

大率合吉神則吉 合凶神則凶.

건록과 합한 자는 횡재가 많고 의외로 명망을 얻는 복이 있다.

정인 귀인의 합은 하늘의 은혜와 귀인과 제휴하는 복이 있고

식신의 합은 의록이 풍부하여 남음이 있다.

크게 요약하면 길신과 합하면 길하고 흉신과 합한 자는 흉한 것이다.